

FIMS의 All-Sky Survey에서 관측 가능한 별들에 대한 조사

진호¹, 강지나¹, 선광일¹, 박장현¹, 육인수¹, 이대희¹, 남옥원¹,
한원용¹, 민경욱², 유광선², 이진근², 오승한²,
Jerry Edelman³, Eric Korpela³, Kaori Nishkida³

¹한국천문연구원, ²한국과학기술원, ³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국내 최초의 우주망원경 FIMS(Far-ultraviolet IMaging Spectrograph: 원자외선분광기)는 과학위성 1호의 주 탑재체로서 2003년 9월 27일에 발사되었다. FIMS는 발사 후 2년 동안을 기본 임무 수행기간으로 설정하여 1년은 천구전역에 대한 전천탐사(Survey)관측을, 나머지 1년은 개별 천체에 대한 관측을 수행할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과학임무는 우리은하에 분포하는 고온(수만~수백만)의 천체 및 가스로부터 발생하는 원자외선 영역의 방출선 관측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험 운용을 거쳐, 현재 전천탐사모드로 운용중이다. 전천탐색으로부터 우리 은하의 UV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주목적이나 이러한 전천관측 자료를 통해 별들에 대한 연구도 가능하다. 이에 시험 관측된 자료로부터 관측 가능한 별들에 대한 조사와 관측 자료의 활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